



이경승 정다운(한결 한별 한솔) 4차 선교편지

2022년 6월

이경승 mkgeneration1@gmail.com katalk ID: kloan1
정다운 akumcss@gmail.com katalk ID: dawoon.jeong
R. Vila Amazonas 488 Apt. 502, Bloco C, Nossa Senhora das Graças, Manaus - AM CEP 69057-240

▶ 선교의 CONTINUITY

브라질 아마존엔 이경승선교사에게 있어 아주 특별한 사역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병원선 사역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여러 차례 한국이나 미국에서 온 의료 봉사자들과 함께 몇 일에 걸쳐 병원선을 타고 깊은 아마존 강변 마을들을 방문하곤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셀 수 없이 많은 마을주민들과 의료진들의 진료 상담을 정신없이 통역하고나면 피곤이 파도같이 몰려오건만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조용한 마을 입구 강변에 묶여 있는 병원선 지붕위에서 밤 하늘 별들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몇 시간을 황홀하게 누워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1999년 여름에는 강변마을 사역 중 이경승선교사가 말라리아에 걸려 고열로 시달리다 결국 사역 도중 마나우스 도시로 나와 몇 주동안 앓아누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유럽보다 더 큰 아마존 정글을 가르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긴 강인 아마존강 주위에는 몇 백개나 되는 강변마을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강과 정글로 인해 세상과 단절되어 그 어떤 의료혜택이나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브라질 정부조차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세상에 잊혀진 이들을 찾아가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해주는 사역이 바로 이 '병원선 사역'입니다.

1990년대에 시작된 이 사역은 월드비전이 아마존 강변마을 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월드비전은 비록 기독교 단체로 사역을 시작하였으나 몇 년간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해외 비영리 단체로서는 강변 마을에 사회적인 복지 지원 혜택은 줄 수 있으나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파트너십을 할수 있는 현지 기독교단체를 찾던 중 당시 이경승 선교사의 부모님 이신 이성전, 고 이신숙 선교사가 팀 사역으로 함께 동역하던 브라질 감리교단에 병원선의 운영권을 맡기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강변마을 복음사역이 시작 되었습니다.





병원선 사역을 협력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에서 다양한 의료팀들이 브라질 현지팀들과 합류하여 의료사역, 전도사역, 여름성경학교 사역, 그 외 여러사역을 하며 강변마을을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 1998 년 한국의 IMF 위기와 2001 년 미국 911 사태이후 외국에서 합류하는 의료봉사자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재정위기도 있었지만 월드비전과의 15 년 협력사역을 마무리 지었던 2013 년 9 월 13 일, 월드비전은 운영권뿐만 아니라 전체 소유권을 브라질 아마존 감리교단에 이양하게 되고 병원선은 본격적인 현지 선교사역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감사 하계도 20 년 넘게 사역을 해오며 여러가지 경험들을 통해 튼튼한 현지 병원선 운영팀들이 세워졌고 세월이 흘러 해외 의료진 팀의 협력은 줄었지만 현지 봉사자들의 협력의 수가 늘어나면서 병원선 사역은 계속해서 발전하였습니다.

2020 년, 팬데믹으로 인해 병원선 운영은 중단되어야 했고, 운영이 중지된 2 년이란 시간으로 인해 병원선은 또 다시 재정과 사역위기에 부딪혔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선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유럽파트너들과 개인 후원자들을 붙여 주셨고 그들의 헌신으로 다시금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12일, 브라질 남쪽 Curitiba에서 올라온 20명의 의료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아마존 강변마을 병원선사역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021 년 11 월 이경승선교사와 정다운선교사가 브라질 아마존 마나우스 선교지에 파송된 후 아버지 이성전 선교사와 함께 현지 병원선사역팀들과 만나 팬데믹 이후 이루어질 병원선사역 방향에 대한 여러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병원선은 25 년이 넘어 많이 낡은 상태이고, 매년 보수 공사비용과 관리비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몇 년 전에는 운영 중 강 한 가운데에서 고장이 나 봉사자들이 애를 먹은적도 있었습니다. 한 마을을 방문할때마다 몇 일이 걸려 들어가는데 현재 병원선은 20 명만 태울 수 있기에 매년 사역에 필요한 모든 팀이 한꺼번에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의료팀과 어린이사역팀, 그 외 사역팀들이 여러 팀으로 나누어 들어가야 함으로 인해 배가 몇 번을 왔다 가야한다는 비효율적인 현실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좀 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새로운 병원선을 두고 기도하는 중 올해 4 월 중순, 병원선 사역에 딱 맞는 배를 찾게 되었습니다. 새로 병원선을 만들려면 적어도 1 년 넘는 시간과 인플레이션으로 치솟는 인건비와 재료비로 인해 큰 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 남미에 유명한 조선소에서 배는 만들어졌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팔리지 않은 선척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50 명이 탈수 있는 4 층으로 된 배로 조금만 손을 보면 병원선으로 개조하여 3 개의 치과실과 2 개의 진료실, 2 개의 수술실, 그리고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 상담할수 있는

커다란 흠이 있는 선척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관계를 맺고 있는 마나우스 주변 강변마을뿐 아니라 사역지역을 확장하여 콜롬비아와 페루국경에 있는 강변마을 까지의 거리도 충분히 항해할 수 있는 배입니다.



이 배를 구입 위해 현재 미국에서 501(C)3 비영리단체를 설립중에 있으며,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4월에서 6월 사이 유럽, 미국, 한국교단 선교국과 여러 미팅을 가졌으며 저희와 같은 비영리단체에게 대출을 주는 미국 fintech 회사와 협상중에 있습니다. 펜데믹 이후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교단 선교국들에게도 자체 재정부족으로 인해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펜데믹 기간이 점차 끝나가며 아마존에 Eco-tourism 이 다시 활발해질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맺고 있는 의대 그리고 사립기관들과의 관계를 넘어 아마존의 광대한 자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브라질, 미국, 한국에 여러 연구기관들과 MOU 를 맺고 재정적으로 자립화된 병원선 선교모델로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인간이 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실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 마나우스 사역 이야기

- 마나우스교회 : 저희 가정의 부재중에도 마나우스교회는 평신도 리더들을 중심으로 예배와 소그룹, 기도모임, 성령집회 참여 등을 계속해서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던 부르노형제는 한 달간 고생했던 두통과 어지러움증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복귀 하였습니다.



- 생명샘교회: 모세목사님의 아버지가 뇌출혈로 고생하시다가 5 월 6 일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가족을 잃은 어려움속에서도 교회 사역을 잘 감당 하시어 강단과 강단 위 천장 리모델링을 성도들과 함께 직접 훌륭 하게 마치셨습니다.

- 이란두바교회: 오랫동안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던 헤니우다목사님은 마나우스지역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체력이 많이 회복되시어 다시 사역지로 복귀 하셨습니다.

- 5 월에는 한국에서 CGNTV KNOCK 팀이 아마존 선교사역 지역을 방문하여 보아 비스따 사역지의 마루와이족(인디언 마을)과 마나우스 인근에 있는 이란두바 사역지를 배경으로 한 여행블로그 콘텐츠를 촬영 후 한국으로 복귀하였습니다.



▶ 그 외 사역들

- 작년에 이어 제 2 차 'MK 들을 위한 8 주과정 (ONLINE) SAT SUMMER CLASS'가 헌신된 한국/미국 자원봉사 선생님들과 함께 6 월 16 일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현지와 온 세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된 분들과 함께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Teachers for MK SAT Summer Clas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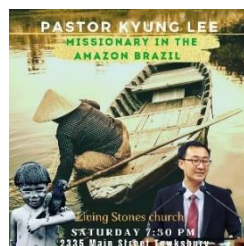
- 새학기를 준비하며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MK GLOBAL 장학금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에도 꼭 필요한 MK 들에게 장학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저희 가정은 7 월 11-14 일 워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열릴 제 9 차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하며 KWMK 와 함께 대회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 세대 선교사님들과 2 세대 선교사들, MK/MZ 세대가 함께 하는 이 선교대회를 통하여 선교에 대한 열정과 많은 선교운동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대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기도응답

미국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선교지에 파송을 받은 저희 부부를 위해 지난 2 년간 많은 분들이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셨습니다. 영주권자의 신분으로는 이민법 상 해외에 장기 체류가 불가하기에 장기 선교사가 되기로 한 이상 미국 시민권이 꼭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지난 4 월 19 일, 저희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분문제로 걱정할 것 없이 안심하고 선교지에 체류하며 선교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여권 발급 지연으로 인해 저희 가정은 아직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늘어났지만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여러 병원선 파트너들과 만남을 갖고 미주 내 브라질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한인 교회들을 방문하여 브라질 아마존선교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뜻하지 않게 계획에 없던 브라질 학교 온라인 수업을 듣고, SNS 로 숙제를 제출하며 마지막 기말고사까지 온라인으로 마치게되었습니다.



6월 기도제목

1. 새로 가동된 아마존 강변마을 병원선 사역이 잘 진행이 되고 25년 되어 낡은 병원선이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병원선이 구입을 위한 비용과 필요한 서류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2. 미국시민권 취득 후 여권을 받기 위해 대기중인데 7월19일 선교지 돌아가는 날까지 여권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의 부재로 인해 선교지의 모든 사역들을 맡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과 리더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실수 있도록,
3. 7월11-14일까지 제9차 세계선교대회가 잘 열리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대회 마무리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받으실수 있도록,
3. 8월17-20일까지 미국 Lady 141 네일아트 사업훈련팀과 함께 브라질 아마존 현지인들에게 제1차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7월 중순부터 American Assimilation Helpline과 협력하여 미국 원어민 학생들과 브라질 아이들을 매칭하여 진행하는 1대1 화상 영어 수업이 시작됩니다. 이 사역들을 통해 전도의 기회와 배움의 기회가 생기고, 빈민촌과 난민들에게 생업과 일자리 창업의 기회가 주어져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2022년의 6월 30일

아마존에서 이경승, 정다운, 이한결(12), 이한별(8), 이한솔(5) 드림

브라질 아마존 선교사역을 위해 물질로 함께 동참하시려면...

한국 : 하나은행 990-194764-156 예금주: GP (이경승, 정다운)

[한국 후원자 등록 안내]

선교회 자료 안내, 연말정산등록, 후원영수문자 수신 등을 위한 후원자 정보등록을 아래의 사이트에 부탁드립니다.

http://gpinternational.org/gp_donation

미국 : Check - Pay to the order: GP USA (Check memo: Kyung Lee/Da Woon Jeong)

Address: GPUSA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USA 92804

PayPal or Smart Pay donation is available at <https://www.gpusa.org/m-donation>

(Please write Kyung Lee, Da Woon Jeong in "Selected Missionaries.")